

시작하며

이번 전시는 두 가지 프로젝트로 진행되며, 가장 핵심적인 프로젝트는 <사람 객관적(People Objective)>입니다. <사람 객관적> 프로젝트는 2011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저와 관련이 있는 '여러 사람들'과 협업 또는 도움을 통해 진행된 작품입니다.

여기서 '여러 사람들'이란 배우, 도슨트, 비평가, 그리고 일용직 노동자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보통 사람들이 쉽게 접할 수 없는 유형의 사람들일 수 있으나, 미술가인 김홍석에게는 그의 일상이자 그의 삶의 일부와도 같은 사람들입니다.

<사람 객관적-평범한 예술에 대해 (People Objective-Of Ordinary Art)>은 2011년 아트선재센터에서 전시되었던 작품으로 작가가 다섯 명의 배우들에게 각각 하나의 미완의 작품에 대해 설명하고, 배우들은 관람객들에게 그 이야기를 다시 직접 구두로 설명하였던 퍼포먼스 작품입니다.

<사람 객관적-잘못된 번역 (People Objective-Wrong interpretation)>는 2012년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전시되었던 작품으로 40여 명의 도슨트들과 함께 한 퍼포먼스 중심의 작품입니다. 작가는 똑같은 작품들로 채워진 3개의 방을 구성한 후 각기 다른 작품 설명을 하는 도슨트 프로그램을 통해 한 작품이 다양한 해석이 가능함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사람 객관적-좋은 비평 나쁜 비평 이상한 비평 (People Objective-Good Critique Bad Critique Strange Critique)>는 2013년 플라토에서 전시되었던 작품으로 작가는 자신의 작품인 1점의 회화와 1점의 입체작품을 세 명의 비평가에게 평론을 의뢰하였습니다. 이 후 세 명의 비평가는 강연을 통해 관람객에 모습을 드러냈는데, 이때 작가는 이러한 저술 활동과 퍼포먼스로 보여지는 강연이 작가의 저작권에 포함될 수 있는가에 대해 우리들에게 물어보는 작품이었습니다.

이번 Blue Hours 전에서는 <시간당 예술(Hourly Art)>란 제목의 프로젝트를 통해 타인에 의해 제작된 미술작품을 소개한다. 작가는 일용직 노동자와 아르바이트 학생들에게 작품 제작을 의뢰하여 을 위탁하여 제작하였는데.

대부분의 작품은 일용직 노동자와 아르바이트 학생들에 의해 만들어 진 것으로 도로잉, 회화, 오브제 등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작가는 아주 단순한 지시와 단순한 노동에 의해 완성될 수 있는 조건을 형성한 후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일방적 주문을 하여 완성하였습니다. 종이에 선긋기, 판넬에 걸레질 하기, 1호 붓으로 색칠하기, 사포질하기 등등과 같이 노동 집약적인 과정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아름다움을 보여줍니다. 아울러 작가와 이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또는 이해를 거부하는) 대상과의 관계에 대해 고민하게 합니다.

국제갤러리는 김홍석의 개인전 <Blue Hours> 를 개최한다. 지난 2008년 이후 두 번째 국제갤러리 개인전을 맞아 작가는 그만의 고유한 걸레질 회화 작품 및 다양한 방식의 노동집약적인 드로

잉들, 예를 들면 장시간이 축적된 벽면에 펜을 이용한 벽면드로잉 혹은 가느다란 붓질의 채워짐으로 일정시간이 담긴 노동의 결과를 드러내는 다채로운 방식의 드로잉들을 선보인다.

참여 작품들은 작가의 의도에 따라 일용직 노동자 및 아르바이트 학생들에 의해 제작된 다양한 형태와 기법의 연작으로서 2011년부터 시작된 <사람 객관적(People Objective)> 프로젝트들과 맥락을 같이 한다. 참고로 <사람 객관적(People Objective)> 은 지난해 플라토 미술관에서 선보였던 비평가 3인이 참여한 강연과 저술활동을 포함한 퍼포먼스와 이전 아트선재센터에서 소개된 다섯 명의 배우들이 관객들에게 본인들이 전달받은 미완의 작품의 설명을 전달하는 퍼포먼스였다.

이 작품 제목이 지칭하는 “사람”이라는 대상은 배우, 도슨트, 비평가, 그리고 일용직 노동자들에 이르는 인물들로서 일상에서 쉽게 접하기 어려운 유형의 대상일지 모르나 작가 김홍석에게는 일상이자 삶의 일부와도 같은 인물들이라 할 수 있다.

이번 국제갤러리 개인전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사람 객관적(People Objective)> 프로젝트는 <시간당예술(Hourly Art)>란 제목으로 노동집약적인 작품 제작과정을 통해 발생하는 작품결과의 미학적인 면모를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조건적으로 작가의 단순한 지시에 따른 단순한 노동으로 귀결되는 각기 다른 형태와 접근의 작품들은 그 일련의 과정에서 발견되는 흥미로운 관계의 지점, 곧 작가의 의도와 이를 지시 받는 노동자의 이해관계에 대하여 고민하게 한다.

그 예로 전시 주요 참여작품 중 하나인 걸레질 회화연작 <MOP-131014 걸레질-131014> (위 이미지참고)을 살펴보자면 작가가 색칠한 캔버스 표면을 일정시간 고용된 일용직 노동자가 손 걸레질을 통해 닦아낸 행위의 결과이다. 각기 다른 색의 캔버스를 닦아내는데 소요된 시간은 약 1시간에서 경우에 따라 2시간 정도가 소요되었다고 하며, 걸레질 과정에서 만족할 만한 이미지가 생성되는 순간 작가의 요청에 의해 걸레질은 멈추게 된다. 이때 작가와 일용직 노동자 사이에 처음으로 미술을 주제로 한 ‘관계’가 발생하는데, 그들이 작가에게 보여준 반응은 단순 노동의 결과가 어떤 근거로 인해 미술작품으로 전환되는지, 그리고 자신들의 육체적 행위에 의해 완성된 그림이 어떤 이유로 작가의 지적 소유물이 되는가에 대한 불편한 의문들이다. 이러한 불편한 상황은 작가의 미적 표현을 대리한 자신들은 그들이 그 동안 품었던 인식의 질서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 없기 때문에 윤리적으로 불편해졌음을 의미한다.

그 외에도 이번 전시에 처음으로 소개하는 구겨진 종이에 대한 입체작품 <DIN A>와 도면처럼 보이는 드로잉작품 <불가능한 완성을 위한 정교한 도면>을 선보인다. 이 작품들은 그의 또 다른 프로젝트 <완전한 미완성>에 대한 것으로, 표준화된 규칙을 통해 완전함과 완벽함을 추구하는 사회적 합의가 미래의 진보를 보장하는가에 대한 의문에서 시작한다.

사회적 합의를 위한 공동의 약속은 문자, 도면 등을 통해 우리의 환경에 질서를 부여하지만, 문자와 도면으로 형상화할 수 없는 것들은 상대적으로 도태되거나 배제된다. 작가는 문자화할 수 없거나 도면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형태를 그의 고유한 방법으로 복원하여 원본으로 돌아가려는 속성과 질서를 유지하려는 욕망에 대척되는 작품으로 완성한다. 작가는 도면 없이 만들어진 기계와 건축물, 반대로 도면화할 수 없는 입체작품과 설치물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하거나 미적으로 아름답다고 제안한다.

궁극적으로 김홍석은 현대사회가 지속적으로 도시화됨에 따라 구조적으로 발생하는 현대미술의 현상, 그 중에서도 작품 제작관련에 따른 비판적 관점에 대해 이야기한다. 이번 김홍석의 개인전 <Blue Hours>는 미술에서 노동을 바탕으로 일반화된 현대미술의 관용적인 구조, 예를 들면 작가를 중심으로 한 작품 제작에 따른 생산화 구조 및 이를 유통하는 소비구조, 나아가 궁극적으로 그 결과물을 작품으로 향유하는 관람자에 대한 인식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Hourly Art 시간당 미술

미술가들이 말하는 소통은 무엇인가? 소통을 위해 실제의 '사람들'을 작품에 개입시키는 미술은 더 이상 낯설지 않다. 그러나 '실제로' 소통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무엇일까? 타인과의 인터뷰, 타인을 소재로 한 타큐멘터리형의 비디오작품들, 다른 이들이 참여하는 퍼포먼스, 그리고 소통이라는 주제에 의해 은유화된 오브제들.

나의 미술 활동에서 직접적 만남의 대상은 관객이 아닌 동료 미술가, 큐레이터, 비평가, 갤러리스트, 미술관 관장, 미술관의 테크니션, 도슨트, 미술관 자원봉사자, 운송사 직원, 공장 노동자, 일용직 노동자, 파트 타임 조수 등이 아닌가? 미술관 사람들은 나와 소통을 하고 있는 것인가? 혹은 나의 가족들, 이웃들, 친구들은 나와 소통을 이루고 있는가? 또는 저 멀리 얼굴 따위는 알 필요가 없는 인터넷상의 공간에서 만나는 이들과 소통을 하고 있는가? 소통이 가능하다는 것은 '나'와 '타인'이 서로를 잘 이해한다는 것으로 해석해도 되는 것인가?

미술작품의 물리적 제작을 타인에게 위탁하는 일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사회적 계약관계라는 소통은 가장 평등한 관계라고 보아도 될까?

미술작품이라는 물질의 생산은 일반적으로 개별적이다. 반면 그것들의 소유는 본질적으로 집단적이다. 왜냐하면 '문자의 소유'는 작품들이 재화들로 고려되지 않는다면 개별적인 의미를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미술작품에 담겨 있는 사상(개념)은 전시되기 전에는, 다시 말해 그것이 사회적 세계에 아직 낯선 것으로 남아 있을 때에는 작가에게 배타적으로 속하지 않는다. 역으로, 재화들의 생산은 더욱더 집단적이 되며 그것들의 소유는 개인적으로 남아 있고, 또 앞으로도 언제

나 그럴 것이다. 토지와 자본이 '국유화' 될때 조차도 그러할 것이다. 책들과 관련해서 볼 때 자유로운 생간이 생산의 가장 좋은 수단으로서 중추적이라는 사실과 관련해서는 의심스러운 것이 아무것도 없다. 입법을 통해 실험적 연구나 철학적 고찰을 규제하려 하는 노동에 대한 과학적 조직화는 아마도 비참한 결과들을 낳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알고자 하는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지식이 배타적인 재산이 될 필요가 없다고, 또 지식이 생산물의 최종적인 양도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이어서 우리는 지식의 전달이 그것을 생산하는 사람도 또는 그것을 교환하는 사람도 약화시키지 않는다고 덧붙인다. 그와

Completed Imperfectness 완전한 미완성

형태의 완전함은 누군가에게 중요한 완성의 단계이지만 어떤 이에겐 불완전함과 우연적 변형이 형태의 완성이 인식되기도 한다. 설계 도면을 그대로 복제하여 생산된 건축물이나 기계들은 그 계획과 과정이 승고하여 공동체로부터 공동의 찬사를 받게 되지만, 다시 재현할 목적이 아니거나 추측이 불가능한 계획에 의해 완성된 구조물의 경우 소속공동체의 미적, 정서적 합의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소외 받기도 한다. 완전함은 완성이 아니다. 형태의 왜곡과 즉흥적 결과가 사회적 합의를 얻어내기 어려울 수도 있으나 그것 또한 완전한 완성이라고 정의한다 해서 비난 받을 일은 아니다. 만약, 어떤 이가 경미한 사고로 자신의 자동차 범퍼가 찌그러졌다면 그는 원래의 상태의 형태로 복원되기를 원한다. 이러한 마음은 완전함에 대한 인간의 통념이자 사회적 학습의 결과일 것이다. 도면에 의해 잘 만들어진 이 작품의 외형에 변형을 준다는 것은 더 이상 이 작품을 위한 도면이 필요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다.